

팔만대장경 동판복원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불식



해인사 팔만대장경 동판복원사업 고불식이 11월 17일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고불식에서 조계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의원 지관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 고불식을 갖는 이 동판대장경은 달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선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은 "팔만대장경 동판복원은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이 동참해서 완성해야 할 과업인 만큼 원만한 화합될 수 있도록 성원과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부산국군병원 묘광사

16일 준공 개원법회

부산국군병원내 법당인 묘광사(상인법사 김근수는 11월 16일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을 증명법사로 집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과 종각 108평 규모로 조성된 묘광사는 법회공간인 대웅전과 지하대중방에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군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됐다. 천미희 기자

원효의 삶·가르침 무대에

27~29일 마당극 공연

원효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창작 마당극 '신세벽 숲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가 무대에 오른다.

원효 성사 열반 1317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민족미학연구소, 민주공원 주최, 문화 기획극단 자갈치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주공원 민주광장기념관 작은 방에서 선보인다.

'신세벽 숲을 토하고...'는 원효 사상을 재조명하고 원효스님의 삶을 통해 불교의 진정한 대중교화와 역할을 역설하는 마당극이다.

천미희 기자

치유예술과 불교가 만난다

아시아 6개국 29일까지 심포지엄·공연

대원사·APPAN 주최

세계적으로 치유예술(아트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와 각국의 치유무용이 광주에서 처음 만난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은)는 2003 아판 한국본부(The Asia-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APPAN)와 공동으로 '아판 제6회 국제심포지엄 및 자선공연'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무각사, 보성 대원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아시아 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26일 광주 무각사에서의 개회식에 이어 '아태공연예술의 치유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아주대 전미선 교수가 '대체의학측면의 유방암환자를 위한 선무'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며 인도의 무용평론가 산타세르프제싱그씨가 '치유에

술로서의 인도무용'을 발표한다. 또한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 각국의 학자들이 '치유무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전통무용과 질병치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발표가 보고 될 예정이다.

이어 26일(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강당), 27일(대원사 티벳 박물관) 양일간 '소아백혈병 어

Dance)가 선보인다.

공연에 이어 참가단은 광주 원효사, 순천 송광사 선암사, 보성 대원사 녹차밭 등을 순례하며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체험하고 29일 회향한다.

이번 아판대회를 공동주관하는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치유예술과 불교가 만나게 되어 뜻 깊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전통불교문화가 세계에 알려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판(APPA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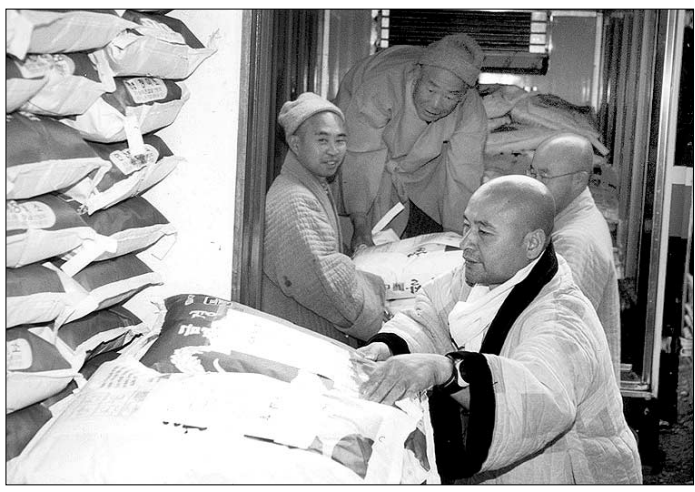
아태지역의 공연예술의 발전, 협력, 진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로 17개국 167개 단체가 2000년 1월 서울에 국제본부를 두고 발족했다. 매년 아시아 각국에서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심포지엄과 문화축제를 개최하며 이번에도 6개국 50여명이 참석한다.

이준엽 기자

전통무용과 질병치료의 상관관계 규명

전마선 교수 '유방암환자 위한 禪舞' 발표

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인도의 '힌두 전통무용', 인도네시아 '코믹한 이중적 성의 표현춤' 태국 '치유무용', 중국 '경곡의 노인춤과 무용', 일본 '재활무용' 등 각국의 전통무용과 치유무용이 공연되며 한국에서는 이선옥 박사가 창안한 국제적인 '선무(Zen



봉선사, 진산식 성금 모아

불우이웃에 쌀·김치전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이 11월 20일 관내 목가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자들에게 자비의 쌀과 김치를 전하는 조촐한 전달식을 가졌다.(사건) 철안 스님은 진산식 당시 모아진 성금으로 4천만원 상당의 20kg 쌀 400포와 김치 100상자를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팔기 어린이집, 관음사, 의정부 선재동자원, 포천시 사회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오유진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봉행

11월 24~12월 22일, 스님 26명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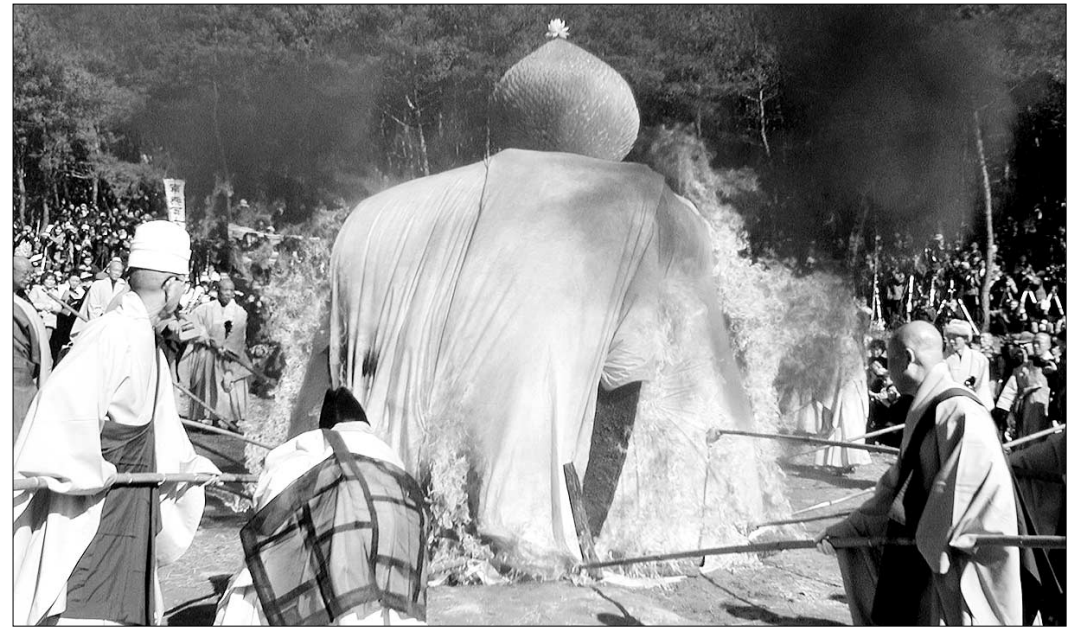
방대한 화엄세계를 26명의 대덕 스님들이 29일 동안 설하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가 열린다.

통도사(주지 현장은)는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화엄산림 대법회

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30여 년의 전통을 지닌 화엄산림은 영축총림 부방장 조우 스님의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전계사 혜남 스님 등 26명의

스님이 제주요업품, 여래현상품, 입법제품 등 화엄경의 방대한 가르침을 29일간 설법한다. (055)382-7182

한편 통도사성보박물관은 11월 17일부터 기획전시실에서 '고려불화 재현전'을 개최한다. 원로 서양화가 강릉사(姜陵史) 화백에 의해 유화로 재현된 수월관음도 등의 고려불화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회는 내년 1월 11일까지. (055)382-100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무주당 청화대중사 대비식이 11월 16일 1만4천여 애도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전 주석하셨던 국성 성륜사 대비장에서 엄수했다.

가시는 듯 다시 오셔서 남은 불사에 힘을...

16일 성륜사서 청화 스님 대비식

조계종 원로위원 무주당 청화대중사 영결식과 대비식이 11월 16일 1만4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국성 성륜사에서 봉행됐다.

영결식은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 스님의 행장소개에 이어 추도, 입장 순으로 진행됐다.

원로의장 도원스님은 영결사에서 "별안간에 원적의 부음을 접하니 일월이 무광하고 대지가 빛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오늘 큰스님을 영결하는 제방의 사부대중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평소 큰스님에게

서 받은 자비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의 마음이 슬픔 되어 흐르는 눈물"이라고 추모했다.

전국수좌회 대표 현산 스님(현암사 선원장)은 "길잡이를 잃은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가시는 듯 다시 오셔 남은 불사에 힘을 더해 달라"고 말했다.

재가불자로는 박성용(금호그룹 명예회장), 허진규(일진그룹 회장), 김근태(열린우리당 대표), 이남기(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재계, 문화계 등 각계대표와 신도, 일반인 등 1만 4천여명이 참석해 청화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아쉬워했다.

국성=이준엽 기자

“생식가루 한되 갖고 석달동안 정진 굶은 허리 펴려고 기둥에 묶고 참선”

45년간 시봉 정신안 보살



"스님은 깨침을 얻은 그대로 생불이셨습니다"

45년간 청화 큰스님을 시봉한 강정신안(82·사건) 보살. 세수 35세이던 청화스님이 대홍사 진불암에서 8명의 스님과 함께 정진했을 때 처음 전진한 강 보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참으

리를 놓아두었죠. 그러나 다음날 보면 그대로였습니다." 청화스님의 장좌불위에 대한 정신안 보살의 설명이다.

강 보살은 "생전의 청화스님은 겸손하셨다"며 "어느 누구에게나 경어를 썼고 문밖까지 나와 배웅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하는 불자들이 수없이 찾아드는 신도회 사무실. 팔손의 정신안 보살은 귀찮아하지 않고 불자들을 손수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청화스님이 그러했듯이...

그때도 안타까워서 방 한쪽에 이부자

를 놓아두었죠. 그러나 다음날 보면 그대로였습니다." 청화스님의 장좌불위에 대한 정신안 보살의 설명이다.

강 보살은 "생전의 청화스님은 겸손하셨다"며 "어느 누구에게나 경어를 썼고 문밖까지 나와 배웅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하는 불자들이 수없이 찾아드는 신도회 사무실. 팔손의 정신안 보살은 귀찮아하지 않고 불자들을 손수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다. 청화스님이 그러했듯이...

그때도 안타까워서 방 한쪽에 이부자

통증 잡는 비결!!!

머지션을 해 보셨나요?

머지션이란?

머지션이란 영어로 '마법사, 마술사' 요술처럼 신기하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 모든병은 기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며 통증도 기가 막히면 생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고 몸속의 기와 혈을 풀어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생체 에너지이다. 인체의 어떠한 통증도 원인은 기가 막혀서 생긴다는 것을 알면 통증은 너무 쉽게 잡을 수가 있다. 머지션을 통증부위에 갖다대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은 머지션에서 기(氣)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누구든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통증을 잡을 수 있는 순수한 자연방법이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진액이 부족하면?

인체는 206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뼈와 뼈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며 이것을 연결 또는 물렁뼈라고 하는데 이 관절에 기가 막히면 "뻣뻣"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에 진액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다. 이것을 오래두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자동차나 기계는 사람이 손으로 윤활유를 적당히 조절해 주지만 우리 인체는 진액(津液)이란 물질, 일명 윤활유(潤滑油)라고 하는 미끄러운 액이 자동적으로 수분과 세포를 축축하게 유지해 주고 있다. 인체에 기가 막히면 진액의 공급이 중단되어 근육질이 경직되고 수분이 증발하여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통증부위에 인위적으로 기(氣)를 소통시켜주면 진액이 다시 잘 돌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된다.

불신이 병을 키운다!

머지션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는 순수한 자연치유방법이며 인체에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든지 한번만 테스트 해 보시면 통증에 대한 고민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만 광고 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증의 종류를 가리지 마시고,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건강에 대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지션 연구원장 서상태

* 머지션 체험 사례 공모 : 채택되신 분에게 머지션을 드립니다.

서울 수도권은 직접 오셔서 무료 체험해 보십시오!!

- * 지방에는 자료 우송에 드립니다.
* 자연요법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 본 광고 내용을 모방한 가짜가 있으니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십시오!!

종로3가 국립관 옆 중앙고시빌 2층

서울 02)2263-5135
평생전화 : 050-2331-0627

머지션연구원

세미나 일정 사찰에서 초청시 무료 출장 강의 및 체험해 드립니다. - 연락주세요 -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장소 : 역삼동 삼성관광호텔 2층 킨룸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제일생원 4거리 차병원 방향 300m 지점

2003년 11월 24일 월요일

장소 : 부천 관광호텔 2층 대연회장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전철 부천역 남광장 - 인현방학 400m

2003년 11월 25일 화요일

장소 : 대전 사모니 관광호텔(구. 웨일리호텔)3층 크리스탈룸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고속버스터미널 뒤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장소 : 울산 태화 관광호텔 별관 2층 연회장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태화로터리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장소 : 대구 동대구 관광호텔 2층 루비홀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고속버스터미널 뒤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장소 : 마산 아리랑 관광호텔 2층 동백홀
시간 : 오후 7시
* 교통편 : 마산역 광장

2003년 11월 27일 목요일

장소 : 부산 아리랑 관광호텔 2층 봉황실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부산역 앞

2003년 11월 28일 금요일

장소 : 광주 파레스 관광호텔 7층 모나코홀
시간 : 오전 11시
* 교통편 : 동구 황금동 밀레오레 건너편